

협회소식

본회, 지난 3월 25일 제2차 정기이사회 회의 개최

- 한백용, 윤희진, 황금영씨 고문으로 추대
- 사료 값 인상 억제 위해 사료업체와 공동 노력키로

본회는 지난 3월 25일 오후 2시 본회 회의실에서 최영열 회장 등 이사 17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4 년도 제2차 정기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본회 김동성 전무로부터 지난 1차 이사회의 주요 결정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은 후 주요안건을 심의했다.

이날 이사회의에서는 충북 괴산군이 괴산군과 증평군으로 행정구역이 분할됨에 따라 기존의 괴산지부를 증평지부로 명칭을 변경하고 괴산지부 설립을 승인하는 한편, 자조금의 조속한 정착을 위해 전국의 각 양돈농가 및 도축업체, 관련업체 등에 자조금의 필요성과 운영방법에 대한 양돈자조금 도별 설명회를 3월 29일부터 4월 10일까지 2주간 개최하기로 결의하고 설명회와 함께 방역교육도 함께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최근 사료가격 인상으로 검정료 인상이 요인이 발생함에 따라 검정료를 현행 23만원에서 25만원으로 두당 2만원을 인상하기로 결의했다. 이와 함께 2004년 예산 추경 승인



▲한백용 고문



▲윤희진 고문



▲황금영 고문

(안), 양돈자조활동자금관리위원회 자금 대부(안), 회비 미납자 회원 자격 상실(안) 등을 심의하고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한편 이사들은 한백용 전 부회장, 윤희진 전 부회장, 황금영 전 부회장을 고문으로 추대키로 결정했다.

특히 이사들은 최근 사료값이 계속 올라 양돈농가들에게 상당한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 본회와 사료업체가 함께 공동으로 노력해 사료값 인상을 억제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본회, 도축장 주5일 근무에 따른 대책 마련 요청

- 주 6일 도축장 운영 기능토록 대안 마련돼야
본회는 최근 오는 2005년 7월에 도축장의 주5일 근무 전면 실시에 따른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본회는 현행 국가공무원 등의 월 1회 토요일 휴무제도가 오는 2005년 7월부터 매주 토요일

휴무로 전면 확대 실시될 계획인바 대부분 공무원들로 구성되어 있는 도축장 검사원들도 매주 토요일 휴무를 실시할 경우 생산자, 도축장, 육가공장, 도매시장 등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히고, 농·축산업의 현장 특수성과 문제점 등에 대해 적극 검토하여 주5일 근무제 실시 전에 현행과 같이 주6일 도축장 운영이 가능하도록 공수의사 등 대체인력 투입 및 도축검사원 교대 근무 실시 등과 같은 세부적인 대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본회, 대설피해 축사 보조지원범위 확대 요청

- 정부 지원 시설범위 소규모 농가 한정

본회는 지난 3월 22일 대설로 인해 돈사 붕괴 등 피해 양돈농가에 대해 정부의 보조 지원범위를 확대해 줄 것을 농림부에 요청했다.

현행 정부의 대설피해농가를 위한 지원대책에서는 시설지원 범위를 소규모 농가로 한정하고 있어 피해 양돈농가가 정부의 지원대책에 의한 실질적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본회는 최근 양돈농가는 부업농에서 전업농 형태로 전환되어 2003년 9월 현재 국내 전체 돼지사육두수중 약 95%에 해당하는 돼지를 전업농가에서 사육하고 있으며, 이들 전업농가의 평균 돈사면적이 약 783평에 달하고 있는데 정부의 지원이 소규모에만 한정하는 것은 이들 양돈농가들의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강조하고, 금번 대설로 피해를 입은 양돈농가 등이 실질적으로 지원 혜택을 받아 조기에 경영을 정상화 할 수 있도록 피해농가에

대한 시설 보조지원 범위 제한을 철폐하고 또 한 복구비용 현실화 등 적극적인 대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고품질 돈육 생산농가에 장려금 등 적극 지원해야

- 본회, 등급판정 결과 적극적인 활용 필요

본회는 최근 정부와 축산물등급판정소에 고품질의 돼지고기를 생산하는 농가를 육성기 위해서는 고품질 돈육 생산농가에 정책자금 및 고품질 돼지고기 생산장려금 등을 보다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어야 한다고 건의했다.

본회는 이와 관련해 지난 93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돼지 도체등급판정제를 적극 활용해 등급판정결과 자료를 잘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본회는 각 농가의 돼지 도체등급판정 결과를 각 시·도(시·군)에 제공해 고품질 돼지고기 생산 농가에는 정책자금 및 고품질 돼지고기 생산장려금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고품질 돼지고기 생산에 다소 부족한 농가에게는 돼지고기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특별 집합 교육 또는 컨설팅 등을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돼지 도체등급판정결과 자료는 축산물등급판정소에서 각 시·도로 제공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각 농가에서 그 지역 시·군을 통해 고품질 돼지고기 생산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농가가 본인 농장의 돼지 도체등급판정결과 보고서를 직접 첨부해 각 시·군에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안고 있으며, 고품질 돈육 생산에 다소 부족한 농가들의 경

우도 별도로 시·군에서 파악할 수 없으므로 이들에 대한 교육 등 따로 관리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어 있는 실정이다.

“돼지콜레라”를 “돈열” 또는 “돈열병”으로 병명 변경 요청

- 본회, 검역원에 의견서 제출

본회는 국립수의과학검역원(원장 박종명)이 지난 3월 18일 본회 등에 돼지콜레라 등 동물질병명 변경에 대한 의견 조회를 실시하고 있는 것과 관련 “돼지콜레라”를 “돈열” 또는 “돈열병”으로 변경할 것과, “아프리카 돼지콜레라”를 “아프리카 돈열(돈열병)”로 명칭을 변경해 줄 것, 그리고 질병 명칭의 끝부분을 “병”과 “증” 두 가지 안 중에 “증”으로 하는 등의 본회 의견을 제시했다.

본회는 특히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동물질병명에 대한 의견 조회 실시에 대해 공감의 뜻을 표하고, 돼지콜레라를 돈열 또는 돈열병으로 명칭을 변경해 소비자의 오해를 불식시켜 양돈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하는데 수파원이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폐사한 돼지, 반드시 소각·매몰해야

병으로 죽은 가축은 반드시 소각하거나 땅에 묻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최근 KBS 뉴스의 보도(4월 13일 9시 뉴스 방송)에 따르면 병들어 죽은 돼지가 무분별하게 개 사료로 쓰이고 있어서 또 다른 가축 등으로 전염병이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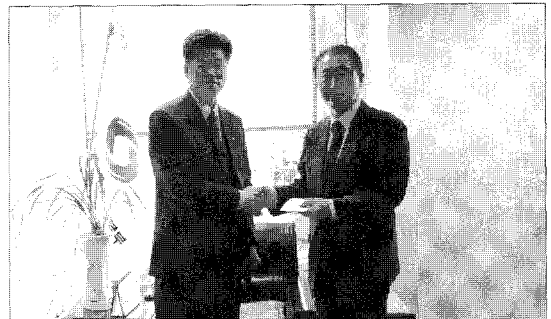
농가는 폐사한 돼지를 소각하거나 매몰하는데 드는 비용을 아낄 수 있고 개 농장에서

도 사료비용을 줄일 수 있어 상호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져 생긴 일로 보여진다.

이와 관련 최근 본회는 각 도협의회 및 지부(회)에 폐가축이 개사료로 유통되지 않도록 지역 양돈농가를 계도하여 가축 전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방역본부와 방역활동 공동 전개키로

- 백혈병 투병중인 방역사에 성금 전달



▲본회 최영열 회장(좌측)이 지난 3월 26일 방역본부를 방문해 정영채 본부장에게 최우영 방역사 돕기 성금을 전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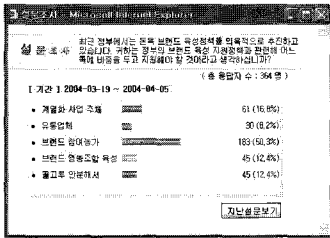
본회 최영열 회장은 지난 3월 26일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본부장 정영채)를 방문하고 최근 급성 골수성 백혈병으로 투병중인 최우영 방역사 돕기 성금을 전달하고, 최 방역사가 하루 속히 완쾌되어 지역의 방역을 위해 다시 한번 열심히 뛰어줄 수 있도록 완쾌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최영열 회장은 정영채 방역본부장과 같이 한 자리에서 방역본부의 노고에 대한 감사와 향후 방역활동에 보다 더 열심히 담당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가축방역위생지원본부 정영채 본부장은 양축농가와의 친밀한 관계 속에 차단 방역을 위한 예찰과 방역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양돈업 매출액 가운데 질병 발생으로

인한 손실액이 생산액의 20%를 차지하고 있어 양돈농가의 수익 안정 및 제고를 위해 질병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공동으로 방역활동을 전개키로 했다.

브랜드 육성사업 “참여농가에 집중 지원해야”



돈육 브랜드 육성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국내의 양돈농가들은 돈육 브랜드사업에 참여하는 농가에 비중을 두고 지원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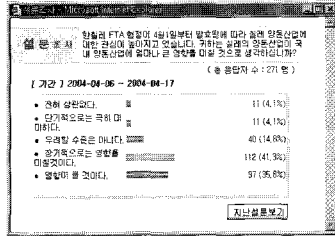
본회가 지난 3월 19일부터 4월 5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최근 정부에서는 돈육 브랜드 육성정책을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귀하는 정부의 브랜드 육성 지원정책과 관련해 어느 쪽에 비중을 두고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설문조사에 총 364명이 설문문에 응답한 결과 응답자의 과반수 이상(50.3%)이 ‘브랜드 참여농가’라고 답했다.

‘계열화 사업주체’라고 답한 응답자는 전체 16.8%, ‘브랜드 영농조합 육성’은 12.4%, ‘골고루 안분해서’가 12.4%였다.

그러나 ‘유통업체’에 비중을 두고 지원해야 한다는 응답자는 전체 8.2%에 불과했다. 한편, 농림부는 현재 41.4%인 돼지고기 브랜드 점유율을 10년 후인 2013년도에는 70%까지 확대키로 하고, 브랜드 참여 경영체를 집중 육성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칠레 양돈산업에 대한 경계심 높아

- 장기적으로 영향이 클 것으로 인식



양돈농가들은 칠레의 양돈산업이 국내 양돈산업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

고, 이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회가 지난 4월 1일부터 4월 17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한·칠레 FTA협정이 4월 1일부터 발효됨에 따라 칠레 양돈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귀하는 칠레의 양돈산업이 국내 양돈산업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라는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77% 이상은 장기적으로는 칠레의 양돈산업이 국내 양돈산업에 영향을 미치거나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답변자중 ‘장기적으로는 영향을 미칠 것이다’가 41.3%를 나타냈으며, ‘영향이 클 것이다.’라고 답한 응답자가 35.8%를 나타냈다. 반면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는 14.8%, ‘전혀 상관없다’와 ‘단기적으로는 극히 미미하다.’가 4.1%를 나타냈다.

한국농업전문학교 양돈반 학생 본회 견학

한국농업전문학교 축산과 양돈반 학생 9명이 현장학습의 일환으로 지난 4월 2일 본회를 견학했다. 이장형 교수의 인솔로 본회를 방문한 학생들은 본회 김동성 전무로부터 양돈협



회의 주요업무와 역할, 양돈동향과 전망, 양돈
 창업을 위해 준비해야 할 사항 등에 관해 설
 명을 들었다. 또한 이날 학생들은 본회가 준
 비한 협회 동영상 홍보비디오를 시청하는 등
 본회의 활동상황과 역할 등에 대해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본회, 1점 선정 '03년 최우수 및 우수 종돈장 시상

본회 제1검정소(경기 이천)는 지난 22일 제
 235차 경매 행사에서 제1검정소가 선정한
 2003년 최우수 종돈장인 포천종돈(대표 양상
 열) 및 등록 부문 최우수종돈장인 문경
 FINE(대표 이경록)과 랜드레이스 부문 최우
 수종돈장인 호박종돈(대표 김창환), 요크셔
 부문 최우수 종돈장인 성현농장(대표 김영석)
 에 대해 시상했다.

제1검정소 검정돈 낙찰가 평균 87만 3천원

지난 3월 22일(월) 본회 공인종돈능력검정
 소 제1검정소(경기 이천) 제235차 검정돈 경
 매에서 검정돈 평균 낙찰가는 87만3천원인 것
 으로 나타났다. 슈퍼돈 4두를 비롯해 총 152
 두의 합격돈이 상장된 가운데 열린 이날 경매

에서 수컷 평균 낙찰가는 1백만2,867원(105
 두), 암컷 평균 낙찰가는 58만4,668원(47두)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날 우정종돈 등록
 수컷(선발지수 272점) 슈퍼돈이 구입자들의
 치열한 접전 끝에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내리 683번지 신창업(동부 시멘뱅크)씨에게
 최고가인 5백5만원에 낙찰됐다.

제2검정소 검정돈 낙찰가 평균 90만 3천원

지난 4월 12일(월) 본회 공인종돈능력검정
 소 제2검정소(경남 하동) 제164차 검정돈 경
 매에서 검정돈 평균 낙찰가는 90만3천611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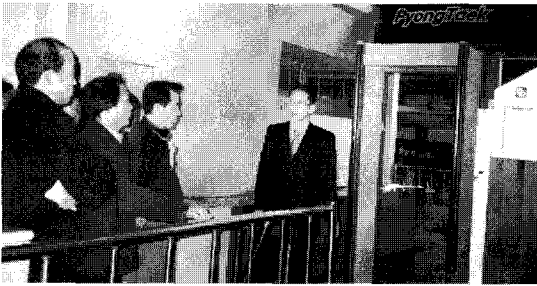
슈퍼돈 2두를 비롯 총 180두의 합격돈이 상
 장된 가운데 열린 이날 경매에서 수컷 평균
 낙찰가는 1백6만3,590원(117두), 암컷 평균 낙
 찰가는 60만6,508원(63두)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날 문경FINE 등록 수컷(선발지수
 273점) 슈퍼돈이 전남 해남군 황산면 연당리
 산 6-8번지 이양로(그린팜스)씨에게 최고 낙
 찰가인 5백만원에 낙찰됐다.

도협의회 및 지부소식

경기도협, 해경 평택출장소 방문 · 밀수 단속 강화 요청

경기도협의회 김건호 도협의회장과 이광우
 전 도협의회장, 정종극 이천지부장, 김용진 평
 택지부장 등 협의회 임원 5명은 지난 3월 15
 일 국립수의검역원 평택출장소와 해양경찰청



▲ 본회 경기도협의회 김건호 회장(왼쪽 두 번째) 등 임원들은 지난 3월 15일 해경 평택출장소를 방문해 국경 검역에 수고하는 해경 요원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국경 검역현장을 둘러보았다.

평택출장소를 방문해 돼지고기를 전달하고 국경 검역에 수고하는 해경요원들에게 노고를 격려했다.

이날 김건호 회장 등은 출장소를 방문한 자리에서 구제역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해외 여행객의 휴대품 검사와 밀수에 대한 단속을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하고, 국경검역 추진실적 및 국경검역 강화 등 향후대책에 대한 설명을 듣고, 여행객 출입과정, 휴대품 등을 검사하는 장면 등을 둘러봤다.

본회, 괴산지부 설립 승인



전병철 괴산지부장

본회는 지난 3월 24일 개최된 제2차 정기이사회에서 기존의 괴산지부를 증평지부로 명칭을 변경하고, 괴산지부의 설립을 승인했다.

이는 행정구역이 괴산군에서 증평군으로 별도 분리가 되어 기존의 괴산지부가 증평지부로 명칭을 변경함에 따라 기존의 괴산 지역에는 지부가 없어져 괴산지역 양돈농가 23명이 괴산지부를 새로 설립하고 설립 승인을 신청함에 따라 괴산지부의 신규 설립을 승인한 것이다.

한편 새로 설립된 괴산지부는 최근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새로운 지부장에 전병철씨를 선출했다. 새로 선출된 전병철 지부장은 지난 89년 돼지 30마리로 양돈을 시작한 이해 현재는 괴산군 청안면 읍내리 216번지에서 모돈 100두 규모의 양돈장을 경영하고 있다.

□ 주소 : 충북 괴산군 괴산읍 동부리 667-9

□ 전화 : 043)834-3440

□ 팩스 : 043)834-3442

증평지부장에 연구원씨

- 괴산지부에서 증평지부로 명칭 변경



연구원 증평지부장

충북 증평지부는 지난 3월 17일 지부 사무실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연구원씨를 신임지부장으로 선출했다. 또한 이재홍, 박관근씨를 부지부장으로 선출하고 감사에 안의훈씨, 총무에 김진용씨를 선출했다. 신임 연구원 지부장은 충북 증평군 도안면 석곡리 537번지에서 양돈장을 경영하고 있다.

한편 본회는 지난 3월 25일 개최된 제2차 정기이사회에서 관할 행정구역이 괴산군에서 증평군으로 별도 분리된 괴산지부를 증평지부로 명칭변경을 승인했다.

여주지부, 최근 양돈산업 환경 분석 교육 가져

여주지부(지부장 김건호)는 지난 3월 23일 오전 12시 여주군 관내 마포회관 2층 회의실에서 김건호 지부장(경기도협의회장)과 지부 회원 39명이 참석한 가운데 3월 정기 월례회

의 및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참석한 회원들은 지난 2003년 한해 동안의 사업에 대한 결산 보고와 중앙회 소식을 듣고, 최근 양돈산업 환경 분석과 미국 양돈산업의 새로운 사양관리 체계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벤치마킹 등에 대한 강의를 들었다. 특히 이날 참석한 회원들은 구제역 특별대책 추진기간 동안에 농장방역을 철저히 할 것과, 돈사 화재예방 등에 대한 의식을 고취시켰다.

양산지부, 결산총회 겸 회원 단합대회 개최

경남 양산지부(지부장 정정일)는 지난 3월 19일 정정일 지부장 등 회원들이 부부동반으로 참석해 “2003년 결산총회 및 회원 단합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남해 미조항을 다녀온 지부 회원들은 지부의 발전과 화합을 다짐하며 행사를 성황리에 마쳤다.

울산지부, 철저한 방역 위해 역량 집중기로

울산지부(지부장 이상국)는 지난 3월 19일 지부 사무실에서 이상국 지부장 등 지부 회원 27명이 참석한 가운데 3월 정기월례회의를 개최하고 당면 현안 문제 등에 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대폭적인 사료가격 인상에 따른 대책을 논의하였으며, 지부에서는 회원들에게 소독 점검기록표를 제작·배포하고 모든 기록을 생활화하여 철저한 방역이 되도록 협회를 중심으로 모든 역량을 집중해 줄 것을 주문했다.

고양지부, 고품질 돼지고기 생산에 다같이 노력

고양지부(지부장 김윤영)는 지난 3월 24일 지부 사무실에서 김윤영 지부장과 이덕규 고양축협장을 비롯한 지부 회원농가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 월례회의 및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김윤영 지부장은 인사말을 통해 4월 1일부터 양돈인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양돈자조금을 두당 4백원씩 걸기로 된 만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고, 최근 사료가격 인상으로 양돈경영에 많은 어려움이 뒤따를 것을 예상해 최저의 생산비로 고품질의 돼지고기 생산에 다같이 노력하자고 말했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는 지난해 결산안을 의결하고 참석한 회원들에게 본회가 발행한 김태욱 변호사의 양돈법률상담집을 한 권씩 지급하고 4월 1일부터 실시하는 양돈자조금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평택지부, 4월부터 헬퍼사업 착수

- 구제역 대비 농장방역 강화기로 결의

본회 평택지부(지부장 김용진)에서는 지난 4월 1일부터 양돈농가의 일손을 덜기 위한 헬퍼 사업에 착수, 앞으로 농가들에게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평택지부는 양돈농가의 경영안정과 복지를 위한 헬퍼사업의 중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6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4월 1일부터 실력이 우수한 요원 1명을 채용하여 양돈전문 헬퍼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평택지부에서 운영하는 헬퍼 사업은 평택시에서 운영비의 40%를 지원하고 나머지는

신청농가에서 부담하며 헬퍼를 신청하는 농가는 한달 전에 미리 평택지부에 신청서를 제출해 지원을 받게 된다. 현재 평택지부에서는 열 여섯 농가가 헬퍼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용식 부지부장은 “회원 양돈 농가들의 호응이 좋아 헬퍼 사업 신청자가 늘 어날 경우 내년부터는 헬퍼를 추가 운영할 예정”이라며 헬퍼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평택지부(지부장 김용진)는 지난 4월 9일 평택 소재 그린가든 웨딩홀에서 김용진 지부장 등 지부 회원 42명이 참석한 가운데 4월 정기월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회원들은 사료값과 자재값의 인상에 따른 대처방안 등에 협의하고, 2004년도 친환경 축산직불제 시범사업 추진계획과 4월1일부터 400원씩 거출되는 현황, 돼지도체 등급판정 기준 개정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

김포지부, 양돈 질병세미나 개최

김포지부(지부장 민경국)는 지난 4월 16일 김포시 월곶면 소재 청룡회관에서 김포지역 양돈농가들과 공동방역단 자원봉사업체, 관계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양돈질병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김준영 양돈컨설턴트를 초빙해 유행성 설사(PED) 및 자돈 이유후 전신성 소모성 증후군(PMWS)에 대한 증상 및 예방과 해결방법 등에 대한 강의를 들었다.

양평지부, 소독관리부 기록 철저키로

양평지부(지부장 조원묵)는 지난 4월 9일

지부 사무실에서 조원묵 지부장 등 지부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 월례회의를 개최하고, 방역 및 소독관리부 기록 등 돈사관리를 철저히 할 것에 대한 논의를 했다.

당진지부, 지부 중심 단합키로

당진지부(지부장 차선수)는 지난 4월 9일 지부 사무실에서 차선수 지부장 및 회원들과 한국냉장 김덕락 대표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4월 정기월례회의를 개최하고 회원들이 지부를 중심으로 더욱 단합키로 결의하고, 지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계통 출하가 더욱 잘 될 수 있도록 협조키로 하였다.

하동지부장에 조재주씨



조재주 하동지부장

경남 하동지부는 지난 3월 7일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이동춘 지부장의 후임으로 조재주씨를 참석 회원 전원의 찬성으로 새로운 지부장으로 선출했다. 또한 총무에는 여태문씨를 선출했다.

심임 조재주 지부장은 경남 하동군 양보면 장암리 553번지에서 대방농장을 15년간 운영하고 있다.

양평지부장에 조원묵씨



조원묵 양평지부장

양평지부는 지난 3월 12일 오전 11시 지부 사무실에서 정택선 지부장과 회원 등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조원묵씨를 신임 지부장으로 선출하고, 부지

부장에 박세창씨, 감사에 김기동, 한우혁씨를 선출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회원들은 돈열 및 구제역 등의 질병이 재발하지 않도록 방역에 만전을 다하기로 했으며, 분노처리의 문제점 및 대처방안에 대한 토의 등을 하고 해결책을 모색했다.

조원묵 신임지부장은 양평축협 간사로도 일하고 있으며, 경기도 양평군 양돈명 계정리 217번지에서 양평양돈단지 영농조합 대표이사를 맡아 일하고 있다.

광주 · 장성지부장에 임승헌씨



임승헌 광주 · 장성지부장

광주 · 장성지부는 지난 3월 10일 11시 지부 사무실에서 지부 회원 등 22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 및 3월 월례회의를 개최하고, 2003년 결산 및 2004년 예산안을 협의 승인한 후 차장곤 전 지부장의 후임으로 임승헌씨를 새로운 지부장으로 선출했다.

또한 감사에는 남기환, 김상수씨를, 총무에는 오재곤씨를 선출했다.

신임 임승헌 지부장은 전남 장성군 서삼면 대덕리 617번지에서 덕인농장을 약 19년 동안 경영해오고 있다.

원주지부장에 이병만씨

강원 원주지부는 최근 지부 사무실에서 지부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이병만씨를 새로운 지부장으로 선출했다. 또한 부지부장에 정태홍, 홍창석씨를 선출



이병만 원주지부장

했으며, 사무국장에 원대희씨, 감사에 심평섭, 주주호씨를 선출했다. 이병만 신임지부장은 원주시 소초면 수암리 298번지 양돈장을 경영해 오고 있다.

또한 원주지부(지부장 이병만)는 지난 3월 25일 오후 7시 원주 소재 오크벨리 입구에 있는 금바위 가든에서 이병만 지부장 등 지부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3월 정기월례회의와 양돈시향 및 양돈산업 전반에 관한 세미나를 듣고, 농장 경영에 도움이 되는 유익한 시간을 갖는 등 행사를 가졌다.

나주지부장에 나권만씨



나권만 나주지부장

전남 나주지부는 지난 3월 24일 지부 사무실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임기가 만료된 김창섭 지부장의 후임으로 나권만씨를 신임 지부장으로 선출했다.

나권만 신임지부장은 건국대 농축대학원 최고경영자 과정을 수료하고, 나주축산농협 이사로 재직중이며, 나주시 다시면 월태리 1176번지에서 희망축산을 경영하고 있다.

화성지부, 사무실 이전

화성지부(지부장 이정배)는 지난 4월 12일 업무의 효율화를 위해 사무실을 이전했다.

□ 변경된 주소 : 경기 화성시 팔탄면 구장리 146-4(화성시 새마을회관1층)

□ 전화 : (031)354-9111 **양돈**